

16년만에 광주서... 한국 연극의 흐름 한눈에 '전국연극제'
동일한 소재·무대극 작가가 이야기하는 5월 '평화연극제'
광주 배우전... 3인극 이내 작품들만 '소극장 연극축제'

2012년 상반기, 연극팬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 같다. 전국 대표 극단들이 경연을 펼치는 전국연극제가 16년만에 다시 열리고,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광주평화연극제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소극장축제 역시 지금까지와는 달리 배우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전국연극제 등을 통해 모처럼 해외 연극단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점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진정한 연극의 매력을 만나다-전국연극제

1996년 이후 다시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는 한국 연극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전국연극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최영화 회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연극협회 회원들과 지역문화계 인사들은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꾸리고 행사를 준비해왔다.

'있다! 있다! 있다!'라는 주제로 오는 6월5일부터 23일까지 광주문화회관과 빛고을문화관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연극제에서는 각 지역 예선을 거친 15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초청공연작으로 5월께 열리는 2012년 서울연극제 대상작이 무대에 오며 한국연극협회와 교류중인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극단의 작품도 공연된다.

특별프로그램은 '빛고를 칠개면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기존 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백화점식 공연을 배제하고 대신, 철저하게 연극적 요소가 가미된 프로그

램들로 꾸렸다. '놀았으면'은 드라마 극장이다. 주 공연장인 문화회관 앞에 비닐극장을 세우고 '해설이 있는 10대 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 '歌 봤으면'은 드라마 버스타. 개조한 버스가 극장으로 변신, 시내 곳곳을 찾아간다. '잘 that's 면'은 행사 소식을 깨알같이 전해주는 전국연극제 팟 캐스트 방송이다. 그밖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 프로젝트로 폐막식 때 결과물을 발표하는 '이랬으면', 연극과 낭만이 어우러진 드라마 포장마차 '解해~스면' 등이 운영된다.

한편 전국연극제에 참가할 광주 대표팀을



지난해 열린 제 29회 전국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광주 극단 '타'의 '막차 타고 노을을 보다가' 한 장면.

전국연극제에 해외작품까지... 연극팬들 즐겁겠네

▲극작가에게 5월을 묻다-평화연극제

지난해 '5·18 무대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주제로 열렸던 평화연극제는 색다른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5·18이라는 동일한 소재와 동일한 무대를 주고 참가 극단이 20~25분씩 작품을 무대에 올려 연출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다.

오는 5월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 역시 동일한 주제로 열린다. 다른 점은 이번에는 극작가가 이야기하는 5월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이다. 공모를 거쳐 광주와 전국에서 4팀씩 모두 8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초청공연도 눈길을 끈다. 도쿄에서 활동하는 극단 일본문화회의 '빛나무 위 빛나무'

가 공연되며 낭독 공연 형식으로 일본 작가 이노우에 히사시 작 '물의 편지'(연출 최영화)와 고연옥 작 '내 이름은 강'(연출 김광보)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극제가 '극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의 평화연극상과 함께 박효선연극상(희곡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배우의 힘을 느낀다-소극장 연극축제

평화연극제가 끝난 후 곧바로 이어지는 소극장연극축제(5월17일~6월2일)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배우전'이라는 타이틀로 3인극 이내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방식이다. 그만큼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는 작업으로 지역 배우들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우수 연기자에게는 광주 출신으로 요절한 연극인 손성권씨를 기리는 손성권 연극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축제는 문예정터, 공연일번지, 예술극장동, 공동예술극장 등 지역의 소극장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 190건 선정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은 2012년 지역협력형지원사업 4개 분야 선정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1건, 시·도기획지원 5건, 레지던스프로그램 3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171건 등 총 190건이 선정됐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2억200만원이 감액된 5억56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소액다건으로 지원단체 및 지원액이 결정됐다. 344건 신청에 171건이 선정돼 선정률 49.7%였으며 단체당 평균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장르별로는 문학 34건, 미술 44건, 사진 14건, 음악 23건, 연극 10건, 무용 10건, 국악 13건, 다원 23건이다.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5억원에서 7억74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단체별로 1억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됐다. 시·도기획지원사업은 8000만원~2000만원, 레지던스 사업은 6000만원~

4500만원까지 지원됐다.

심사 결과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2~5.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광주현대무용단(남구문화회관)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광산문화회관)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영상센터) ▲진달래 피네(북구청소년수련관) ▲청춘(남구문화회관) ▲아트컴퍼니원(광산구 문화회관) ▲그린발레단 ▲한소리회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강속자 오케라 라인 ▲광주국악협회

△시·도기획 지원사업-▲김원중의 달거리 ▲타와그를 일수 ▲에비 사회적 기업 꿈꾸는 예술 ▲놀이매 신명 ▲풍물연희 예술단 광대. ▲레지던스 프로그램-▲광주미협 ▲의재문화재단 ▲대동문화재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흥 남포미술관으로의 '특별한 외출'

중견작가 15명 소장품·작품 전시- 7일~4월 26일

고흥 남포미술관은 오는 7일~4월 26일 봄을 맞아 고흥의 컬렉터 송정호씨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특별한 외출'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도판 도자기 작품을 비롯해 황순철·조의현·강종열씨 등 국내 중견작가 15명의 회화, 조각, 한국화 등을 선보인다.

김기창 화백의 '십장생'은 도자기를 화폭삼아 자유롭고 단아한 작품이며, 부엉이는 푸른빛만을 사용해 부엉이와 나무, 꽃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또 함께 선보이는 황순철의 '고인돌 마을'은 특유의 질감으로 마을과 오솔길을 형상화했고, 조의현의 '소년상'은 군



황순철 작 '고인돌 마을'

은 표정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빚은 작품이다.

이 밖에 절벽 위에 우뚝 솟은 나무에서 꽃을 피운 강종열의 '동백꽃' 등 볼만한 작품이 풍성하다.

문의 061-832-00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책으로 만나는 '인문학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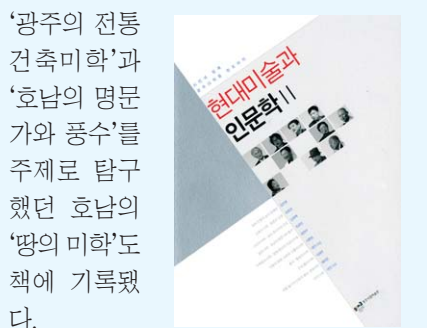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주최- '남도미학' 고스란히

지난해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인문학 강좌II' 강의 내용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이번 책에는 '광주미학을 창조하자'를 주제로 10차례 열린 '인문학 강좌II'는 광주의 건축, 춤, 무용, 전통놀이, 회화, 풍수, 음식, 차 등 다양한 분야 속에 담긴 '광주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동안 강사로 참여했던 문화 전문가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겼다. 이화여대 김우창 교수가 '문화의 전통과 삶의 일체성'을 주제로 강의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수록된다.

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 공동 감독과 조용현 전 원광대 교수가 각각



'광주의 전통 건축미학'과 '호남의 명문가와 풍수'를 주제로 탐구했던 호남의 '땅의 미학'도 책에 기록됐다.

호남의 집터와 건축물에 담긴 남도민의 정서와 생활을 이해하고, 지역화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시립미술관은 우선 500권을 만들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비빔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